

[참고]

감응*1)은 비언어적이고, 비의미적인 신체적 진동을 의미한다. 언제나 지연되고 일부만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화의 실패를 감내하는 개념이다. 감응은 본래 기호 이전의 층위에서 작동하기에, 결측은 그 감응을 완전히 재현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를 반복적으로 호출하고 감당하려는 태도 자체가 결측이 윤리 개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제다.

이 실패를 반복해 사유하려는 시도, 도달하지 않았던 감응의 흔적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려는 이 느린 귀환의 움직임은 윤리가 지연 속에서 도래할 수 있는 조건을 끊임없이 열어둔다. 결측은 윤리의 포착의 불가능성 자체를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그 실패의 구조를 감당하려는 사유의 자세가 윤리의 첫 조건이 된다는 시간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사유는 레비나스가 말한 요청 이전의 감당과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에서 타자의 요청은 이미 나를 호출하고 있으며, 응답 이전에 주체에게 선도달성의 부담을 부과한다. 그러나 결측은 이 요청조차 도달하지 않았던 경우, 그 실패가 발생할 수 있었던 구조적 조건을 되묻는다. 결측은 요청이 도달하지 못한 시간성, 지각 불가능성의 구조, 사회적 맥락, 주체의 인식 한계와 개입 가능성 전체를 윤리의 사유 대상으로 삼는다.

결측은 판단, 응답, 책임이라는 전통적 윤리 개념의 이후가 아니라, 그것들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조건의 실패에 대한 사유적 개입이며, 이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감당하려는 자세야말로 도달하지 않았던 요청과 여전히 도달할 수 있는 윤리 사이의 가장 미세한 시간 구조임을 드러낸다.

***1) 감응(affectio):** 감응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신체에 도달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비언어적인 반응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감응은 특히 레비나스적 타자의 요청 가능성을 품는다. 이 감응은 지각되거나 인식되지 않아도, 윤리적 잠재성의 형태로 유예되고 귀환될 수 있는 구조로 지속된다.

1. 문제 제기

미투 운동이나 노예 제도와 같이, 당대에는 감응되지 못했지만 사후에 윤리적 요청으로 재구성되는 사건들은 윤리가 감응의 실현 여부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윤리는 요청, 책임, 판단 가능한 인식을 전제로 구성되어 왔고, 이러한 구조를 가장 급진적으로 해체한 인물이 레비나스였다. 그는 타자의 요청이 주체에게 선도달한다는 비대칭적 구조를 통해, 윤리를 응답 이전의

초월적 요청으로 재구성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타자의 요청은 항상 도래하지 않는다. 어떤 요청은 즉각적으로 감응되지만, 지각되지 않은 채 실패하거나 유예된다. **결측*2)**은 이 감응의 차등성과 지각 실패의 구조에 주목함으로써, 윤리의 조건 자체를 다시 구성하려는 개념적 시도이다.

*2) **결측**: 감응이 잔류하는 시간 구조 (=Case 2: 윤리의 귀환적 구조)

2. 개념 정의

감응(즉각 반응)

↓ (지연)

유예/잠복 (비언어적 흔적)

↓ (사후적 계기)

사후 귀환 (재지각)

↓ (응답 가능)

판단/책임/실천

↻ (반복/유예로 순환)

결측은 윤리의 요청이 단지 도달과 응답의 구조에 따라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 실패의 구조, 유예된 감응의 잠복성과 귀환 가능성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로써 윤리를 판단의 실현이 아니라, 실패의 반복 속에서 사유되는 가장 이른 시간 구조로 재정의를 한다. 따라서 윤리는 실천 이전에도 존재하며, 실천 이후에도 여전히 실패를 감내해야 하는 형태가 된다.

■ Case 1: 실천적 윤리의 구조

감응 → 지각 → 인식 → 응답

■ Case 2: 윤리의 귀환적 구조 (=결측)

감응 → (지각 실패) → 버추얼한 흔적으로 잠재 → 후속 사건에 의한 지각 → 인식 → 응답 (지연)

감응은 때때로 인식의 형태로 도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 이유 없는 긴장감**처럼 주체 내부에 감지되었으나 명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이는 ‘감응 → (지각 실패)’ 때문이다.

후설에 따르면, 지각*3)은 유지(*retention*)와 예견(*protention*)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 주체는 대상의 전체를 경험하지 않으며, 언제나 부분적으로 주어진 현실과 예감된 전체 사이의 간극 속에서 지각한다. 이 불일치가 클 경우, 지각은 수정되거나 좌절되며, 인식되지 않은 채 흔적으로 잔류하게 된다. 가령 제도화된 폭력을 인식한 이후 “그때 당시 상황이 불편했지만, 이유를 몰랐었다”는 경험은, 예감된 감응과 현실 간의 불일치로 인해 지각되지 못한 감응이 내재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응은 이후 다른 언어, 맥락, 사건의 계기를 통해 지각되면서 윤리적 응답의 조건을 형성한다. 폭력이 반복될수록, 감응은 ‘지속된 것’, ‘일상적인 것’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지각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폭력의 비가시화 혹은 정상화(*normalization*)이다.

반복은 저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자체를 마비시키는 구조로 작동한다. 그러나 지각 구조가 어떤 계기를 통해 끊기거나 재구성되는 순간, “그건 원래 이상했던 거야”라는 감응의 지각적 회귀가 발생한다. 이때의 귀환은 단순한 회상이나 감정의 반복이 아니라, 지각되지 않았던 감응이 사후적으로 인식 가능한 구조에 진입하며, 윤리적 요청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형성하는 사건이다.

***3) 지각:** 감각적 자극이 의식적으로 포착되어 대상성을 구성하는 작용이며, 단순한 감각의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주체가 세계와 맺는 신체적·의식적 접면으로서의 경험이다.

3. 개념 정의

결촉(結觸)의 시간성은 감응과 지각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판단 불가능성의 긴장이 교차하는 틈이다. 감응은 지각으로 곧장 이행하지 못한 채 실패할 수 있으며, 이 실패는 소멸이 아니라 유예의 형식으로 잠복한다. 핵심은 이 지각 실패가 단절이 아닌, 반복 가능성의 조건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감응은 지각되지 않더라도 신체적·정동적 흔적으로 잔류하며, 특정한 계기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각과 인식의 구조 속으로 귀환할 수 있다. 결측은 바로 이 지연된 귀환의 가능성, 감응의 반복적 귀속을 통해 윤리적 요청이 도래할 수 있는 시간 구조를 사유한다.

감응의 흔적이 잠재적으로 잔류하는 이 구조는 들뢰즈적 의미에서 버추얼(*virtual*)하다. 즉, 실재적이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의 잠재성으로 기능한다. 이는 감응이 인식되거나 언어화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으며, 윤리적 가능성으로 남는다는 의미다.

동일한 상황에서 감응에 응답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지각 가능성의 구조가 최소한 일부에게는 열려 있었다는 점을 역으로 증명한다. 따라서 감응은 지각되지 않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잠복한 채 흔적으로 잔류하고, 의미로 도달하지 못했던 윤리의 가능성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긴장을 지속한다.

3-1. 데리다의 차연

데리다의 차연(*différance*)은 '지금-여기(*present*)'가 결코 자족적인 현전(*presence*)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흔적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의미 사이의 지연된 시차 속에서만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구조는 감응이 지각되지 않고도 잔류하며, 특정 계기를 통해 귀환할 수 있다는 결측의 시간성과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이는 '말해지지 않은 폭력', '설명되지 않은 불편함'들이 결측의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윤리의 문턱을 두드리는 방식을 사유하게 한다.

감응이 기호화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의미로 명명되고, 제도적으로 승인될 수 있을 때쯤에는, 이미 그 즉각성의 윤리적 긴장을 상실한 후다. 윤리란 사실상, 그 이전에—아직 언어로 진입하지 않았고, 해석되지 않았으며, 승인되지 않았을 때—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감응은 언제나 투사와 인식의 왜곡, 혹은 신체적 침묵과 정동의 비명료성 속에서 실패한다. 바로 이 불가능성의 조건 위에서, 윤리는 결국 법이라는 최후의 장치를 통해 구조화된다. 하지만 이 장치가 윤리의 실현이라기보다, 윤리의 유예와 귀환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사실은 종종 잊힌다.

3-2. 메를로퐁티의 살

왼손으로 오른손을 만지는 순간, 나는 ‘만지는 자’이자 ‘만져지는 자’가 된다. 하나의 몸 안에서 경계가 생기고, 나는 동시에 안쪽이자 바깥이며, 주체이자 대상이 된다. 메를로퐁티는 이 상태를 ‘살(flesh)’이라 불렀다. 살은 세계와 주체가 서로 감응하는 물질의 접면이며, 지각은 이 살의 층위에서 발생하는 비동일성, 침입, 경계의 동요를 동반한다.

그에게 지각은 항상 불완전하고, 세계와의 접촉 가능성 속에서 열린 구조로 작동한다. 그러나 그는 지각의 실패가 윤리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지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결측은 바로 이 틈에서 출발한다. 감응이 지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은 단지 주체의 무지나 둔감함 때문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자체가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측은 이 지각 실패의 유예 구조를 윤리의 가능성으로 전환한다. 지각되지 않은 감응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연된 채 유예되며, 시간이 지나 사회적·담론적 조건이 재구성될 때 귀환하고, 그것은 윤리의 요청으로 전화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우리는 지각하는 존재이기에, 감응하지 못했지만 감응했어야 했던 순간을 사후에야 인식할 수 있다. 윤리는 이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실패한 감응을 끝까지 감당하려는 반복의 형태로 도래한다.

4. 이론의 분기점

윤리적 실패는 감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감응이 발생할 수 있었던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그것이 지각되지도, 응답되지도 않은 채 유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유예된 감응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지각 가능성의 재구성을 통해 윤리적 요청으로 귀환한다.

4-1. 레비나스와의 분기점

레비나스 윤리학의 구조는 타자의 요청이 필연적으로 나를 침입한다는 전제다. 바로 이 지점—동일한 상황에서도 침묵 이전 타자의 침입을 감지하는 감응의 불균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결측은 감응의 비도달 유무를 주체의 결여로 보지 않고, 지각 구조의 성립 여부로 해석한다.

4-2. 정동이론과의 분기점

결측과 정동은 모두 언어 이전의 신체적 반응, 비의미적 진동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동이론의 일부 흐름은 감응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지각되지 않았던 상태를 암시하긴 하지만, 그것을 윤리의 요청 조건으로까지 이론화하지는 않는다.

반면 결측은 지각되지 못한 감응 자체를 윤리적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감응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각될 수 있었던 구조적 조건은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유예된 채 잔존한다. 결측은 바로 이 실현되지 않은 감응의 가능성이 머물 수 있었던 유예 공간, 그리고 그 지각 실패의 반복 가능성을 윤리의 조건으로 사유한다.

5. 예상반론

5-1. 사후적으로 윤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성은 무엇인가?

미투 고백은 처음에는 종종 '감정 과잉'이나 '불편한 이야기'로 간주되며 무시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사회적 맥락이 재구성되면서 동일한 발화는 윤리적 요청의 사건으로 다시 호출되었다. "눈물이 났지만 이유를 몰랐다", "그 말이 불편했지만, 기분 탓이라 여겼다"와 같은 진술은 감응이 당대에 지각되지 않았지만 삭제되지 않고 신체적·정동적 층위에 잔존했다는 증거다.

이러한 감응은 단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윤리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그 감응이 지각되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한 주관적 무지가 아니라, 지각 가능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이다.

결측은 바로 이 지각 실패의 구조가 사후적 귀환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귀환이 새로운 윤리 요청의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후적 반응은 과거를 재해석하는 회상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감응이 언어화되지 못한 채 유예되었던 시간 구조가, 특정 계기를 통해 다시 열리는 사건이다.

윤리는 지금-여기에서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되지 못한 감응의 유예가 인식 가능성을 획득할 때 사후적으로 도래할 수 있다. 이 지연된 도래야말로, 윤리의 요청이 단지 판단 가능한 반응이 아니라 실패의 감내를 포함한 시간 구조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 감응의 부재는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지각 실패의 결과다.

- 지각 실패는 혼란스러움/불편함/기분탓으로 치부되거나 잊혀진다.

나. 그럼에도 감응의 흔적이 잔류한다.

- 지각되지 않은 감응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 특정 계기로 지각-인식이 재구성되며, 윤리가 출현한다.

- 이 귀환은 버추얼한 흔적으로 잠재한 감응이 사후적으로 재구성되는 사건이다.

- 이 틈은 감응이 부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시간 구조이다. (*결측이 개입하는 지점)

5-2. 감응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에 윤리 요청을 두는 건 과도하다.

감응은 지각되지 않더라도 후속 사건을 통해 귀환하는 현상적 반복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감응의 유무는 주체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지각 조건의 구성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감응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반론은, 오히려 결측이 지목하는 구조적 실패—즉, 지각 불가능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감응이 도달할 수 있었던 구조적 조건이 실재했다면, 그때의 감응 실패는 부재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감내되어야 할 시간적 조건으로 남는다.

5-3. 윤리의 요청은 누구를 향해 작동하는가?

윤리의 요청은 특정한 주체를 향해 도달하거나, 명시적인 응답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는 결코 책임, 판단, 실천이라는 윤리의 주요 개념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개념들이 감응 이전의 실패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감응이 여전히 유예된 상태에서 너무 이르게 개입할 때, 윤리적 요청의 잠복성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감응을 판단이나 실천의 구조에 가두는 순간, 이는 하나의 감정, 상황 해석, 규범적 명령으로 환원되며 긴장을 상실한다. 결측은 윤리가 요청의 실현이나 응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요청이 도달할 수 있었던 구조 자체의 불균등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윤리는 요청이 이미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요청은 도달하고, 어떤 요청은 실패했는지를 묻는 감응 구조의 비대칭성 속에서 사유되어야 한다.

5-4. 윤리는 반드시 실현된 사건에만 근거해야 하는가?

윤리는 감응이 즉시 실현되거나 명시적으로 반응된 사건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현되지 않았지만 유예된 감응의 가능성과, 그 구조로부터도 윤리는 출현할 수 있다.

같은 장면 앞에서도 어떤 이는 즉각적으로 감응하고, 다른 이는 아무 반응도 느끼지 못한 채 지나친다. 이 차이는 감응이 실제로 존재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감응은 왜 지각되었고, 다른 감응은 왜 삭제되었는가를 묻는 지각 조건의 비대칭성 문제다. 결국 핵심은 감응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감응이 지각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즉 지각 불가능성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를 사유하는 것이다.

결측은 사후적 해석이 아니라, 삭제되지 않고 유예된 실패가 지연된 형태로 귀환하면서 윤리의 요청으로 들리게 되는 시간 구조이다. 이때 감응의 비도달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윤리로 전환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유예된 채 지속되고 있던 긴장이다.

그리고 이 지각 실패와 귀환의 구조가 반복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윤리를 전통적 의미의 반응 구조가 아닌, 실패를 감내하려는 사유의 반복 형식으로 다시 정립해야 할 이유를 드러낸다.

5-5. 가능성만으로는 윤리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윤리의 구조를 지나치게 형식화된 판단 가능성과 실천 가능성에만 제한시키는 인식론적 오만에 가깝다. 사후적 해석으로 윤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수많은 현실 사례—예컨대 미투 고발, 가부장제 등—을 생각해본다면, 윤리는 반드시 반응의 형식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지되기 어렵다.

또한, 레비나스조차도 “타자의 요청은 이미 나를 호출한다”는 구조를 통해 행위 이전, 판단 이전의 초월적 조건에서 윤리를 발명했다. 결측은 다만 이 초월성을 유지하지 않되, 윤리의 발생이 감응의 가능성 위에서도 유예되며 작동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가능성 위의 윤리를 비난하는 논리는 스스로 레비나스의 윤리 구조조차 반박하게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5-6. 모든 침묵이 윤리로 기입된다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결측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수용한다. 실제로 이 개념이 요청하는 것은 그 위험성을 감당하는 철학적 태도다. 하지만 ‘침묵에 윤리를 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말해지지 않은 고통은 윤리적으로 무효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결측은 그 선언이야말로 윤리의 사각을 고정시키는 폭력이라고 본다.

모든 침묵을 윤리로 환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침묵이 지각 가능했을 수도 있었던 구조를 사유하자는 것이다. 이때 ‘일부 침묵’이란, 감응이 구조적으로 지각될 수 있었던 조건이 실제 존재했거나, 지각 실패의 반복이 패턴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결측은 윤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가 구조적 맹점에 도달하지 못했던 틈을 사유 가능하게 만드는 개입이다.

5-7. 결측에는 책임도 판단도 없다.

윤리를 실행 가능성과 판단 구조 이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 윤리학의 시간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입장이다. 결측은 그 반대의 질문을 제기한다. 즉, 기존 담론이 포착하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 윤리가 어떻게 가능했을 수 있었는가를 묻는다. 실천을 폐기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 이전에도 윤리가 요청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음을 감당하자는 사유적 제안이다.

그 실패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채 유예되었던 감응의 구조이며, 어떤 사건, 언어, 혹은 감각의 계기를 통해 윤리의 형태로 다시 호출될 수 있었던 잠복된 가능성으로 지속된다. 결측은 바로 이 실패의 지속성과 귀환 가능성의 시간을 개념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 윤리가 기입하지 못했던 고통, 판단하지 못했던 상황, 책임지지 못했던 시간의 균열을 철학의 언어로 다시 끌어들인다.

결측 개념의 오용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1. 감응 유무를 판단 기준화하는 오용
2. 실패의 정당화 도구로 활용하는 오용

3. 모든 침묵을 윤리 요청으로 환원하는 과잉 추론

4. 구조적 질문성과 윤리적 긴장을 제거하는 축소 해석